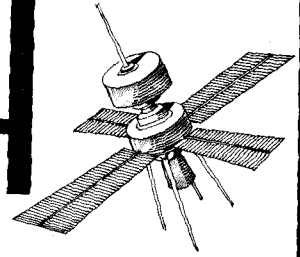


이달의

인테나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선택의 기준 분명해야

전국이 몸살을 앓는 대학입학시험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신문 잡지들도 아예 입시지옥으로 표현한다.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재수나 취업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입학 또는 낙방으로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한다.

사람사는 것이 선택의 연속이며 선택을 떠나서는 삶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을 올바르게 할수 있는 지혜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선택은 그 결과가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선택은 자유의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의 가능성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며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수반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

지는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최악이라고 한다.

책임의 전가가 아닌 끝까지 책임져 보려는 신앙적 자세가 필요하다. 책임지지 못하는 선택 그것은 최악이며 한번 선택하면 변하지 않는 자세도 필요하다.

매사 선택의 기준이 눈치작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매년 대학입시때마다 외쳐대지만 어쩔수 없이 매년 눈치작전은 되풀이되고 말다.

선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배우자나 직업의 선택이지만 양계를 하려면 역시 사료의 선택이 어렵다.

어느 회사의 사료를 먹일 것인가에 대한 선택 기준을 품질, 가격, 외상기간 외에도 프레스 알파 등 어디에 둘 것인가를 선택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사료선택을 올바르게 해야 농장이 전실하게 발전할수 있기 때문이다.

배합사료에 대한 농수산부의 정책이 상당부분을 자율화함으로써 양축가들이 사료를 선택할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은 다행한 일이며, 그 결과 1~2년 사이에 사료의 품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은 선택의 폭을 넓힌 결과였다.

한단계 올라가서 사료공장의 원료구입에는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들게 마련이다. 사료협회나 축협을 통해서 대부분의 원료를 일괄구매 방식



으로 구매하여 회원 공장에 공급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료협회나 축협외 구매방법도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선택의 폭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입찰이라는 가격위주의 구매방식을 택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선택의 폭을 제한하기 때문에 양축가들의 사료 선택의 폭도 그 내용에서는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난 축산경영학회주최 심포지움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었다.

사료가 가축의 식량이기 때문에 식품위생을 생각할 수준이 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의 증가는 가격위주의 일괄 입찰방법의 구매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게 되며 아무 음식이나 잘 먹고 식중독을 견디어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는 결인의 사회에서나 통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생추이건 배합사료이건 또한 구매의 단계에 관계없이 선택의 기준으로 다음 세가지를 제시하여 본다.

첫째 최근 유행하는 말로 구매제도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다. 불만을 최소화하고 이들을 이해시켜가며 업계의 화합을 생각해서 결정하여야 하며, 정부나 어느 기관이 제도의 개선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로 어느 것이 진리이냐 하는 문제이다. 다수결로 결정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안된다. 어느 계층 집단의 이해에 의해서 다수결로만 결정되어서도 안된다.

셋째, 외형적이고 현실진행적인 것에 선택의 기준을 두는 것은 위험천만이며 미래를 내다보고 선택하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흥분으로 선택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다.

이상 세가지 기준은 우리의 최소한도의 필수 조건이며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

양계의 규모를 법으로 정하고 정부가 생산조절을 명하는 정책을 정부가 선택하였고 의회를 절감하기 위해서 배합사료의 물량을 조절하는 정책은 우선 현실적으로 손쉽다는 잇점은 있으나 그 부작용은 엄청나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즈음은 업계의 분위기가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목적이 아니고 외화절감이 목적인듯한 인상을 갖으며 외환수지에 대한 걱정을 주무부서인 재무부보다도 축산인들이 앞서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국민이면 누구나 외채 걱정을 해야하고 낭비를 줄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목적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데 절개봉합 등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하였으나 환자는 죽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계군혈청 검사의 공과

83년 후반기부터 실시한 계군혈청검사 사업이 금년도 사업으로 3년이 지났다. 그간 한국사료협회와 축협중앙회(축산진흥기금에서 재료비 지원)의 후원으로 본회가 주관하고 가축위생연구소가 시행기관으로 3년간 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양계사업이 규모면에서 대형화하고 집단화 밀집화 함으로써 질병의 발생빈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닭질병 발생 양상은 만성 복합성 질병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경향이어서 이러한 질병들은 실험실진단 없이는 정확한 병인을 규명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닭질병의 특수성 때문에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군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이 필요하여 이 사업을 실시하여 왔었다.

그간 희망농장들의 큰 호응을 받아 왔으며, 우리나라 닭질병의 방역사업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주요 조사대상 질병이 추백리, 마이코플라스마병, 감보로병, 레오바이러스 감염병,



전염성 기관지염, 닭뇌척수염, 뉴켓슬병, 산란저하증-76, 계두, 닭뇌척수염 등 닭의 중요 전염성 질병들이 총망라되어 있어 대상농장들은 적어도 이러한 질병으로부터의 피해는 사전에 과학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86년도부터는 몇개 사료회사들과 백신메이커들이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군혈청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주먹구구식 경영은 있을 수 없으며 이들 거래선과 협조하여 방역의 과학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지난 3년간 뿌린 씨가 이제는 많은 양축가들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혈청검사에 참여하게 된것만으로도 큰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병아리 및 노계시세엽서」
「시세속보」 「사료관측엽서」

구독신청은 752-3571·2 로